

'84 양돈 경기 전망

지도부 이 성우

돼지가격이 구정이 지난 후에도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있어 지육kg당 14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생산비를 밑도는 불황이 7개월이상 지속 되었건만 돈육가격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통계에의하면 지난 12월말의 돼지·총사육두수는 9월에 비하여 2%가 감소 하였으나 모돈의 사육두수는 오히려 2.5%가 증가한 61만두나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을 이겨나가고 호황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육돈은 감소시키고 모돈만을 늘려놓은 셈이다

또한 돼지사육농가도 100두이상 사육농가는 증가한 반면 100두미만 사육농가는 감소되고 있어 자본축적능력이 이미 양돈을 포기한 상태에 있으며 사료가격의 인상과 사료판매제도의 현금화로 생산비의 압박은 더욱 커지고 모돈 사육두수의 증가에 의하여 앞으로 양돈불황이 조기에 회복될 전망이 희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기간내에 소규모 부업농가의 양돈업 포기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돼지 전염성 위장염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상황은 밝혀지지 않고있다. 1월의 돼지 전염성 위장염의 피해로 인하여 5~6월의 돈육수급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설도 있지만 정확한 피해 결과가 나오지 않고있어 속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근본적인 불황의 극복을 위하여는 각자가 보유모돈의 20%를 감축할 때에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안정적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될것이다. 현재 실시중인 전농장의 자율적인 모돈감축, 정부의 모돈수매등이 계획대로 성공리에 완수될 경우에 한하여 양돈불황은 '84년후반기에나 회복될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